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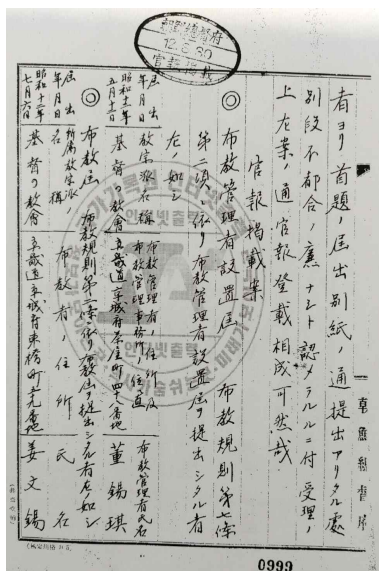
제13장 基督の教會 - I

일제는 조선의 모든 종교단체를 통제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포교 규칙을 제정하여 1915년 8월 16일(월) 자 『조선총독부 관보』 제911호에 조선총독부령 제83호로 공포하였다. 이 포교 규칙은 일부가 개정되어 1920년 4월 7일(수) 자 『조선총독부 관보』 제2294호에 조선총독부령 제59호로 공포되었다. 개정한 이유는 일제가 조선의 모든 종교단체에 대한 통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이러한 포교 규칙에 따라 모든 종교단체의 포교관리자(종단 및 기독교 그룹·총회·선교부 대표)는 “포교사무실(종단 및 기독교 그룹·총회·선교부 본부 사무실), 선교사들과 내국인 목회자들이 펼치는 포교(선교), 포교소 설치(교회설립), 포교소 담임자선정(담임 목회자), 포교소 담임자변경, 포교소 소재지 주소(예배당 주소), 포교소 소재지 변경(예배당 주소변경), 포교자(목회자) 폐지 혹은 포교소 폐지 등에 관한 일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만 했다.

이때 동석기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룹 대표 선교사의 자격으로 조선총독부 포교 규칙에 근거하여 1937년 5월 12일(수) 경성부에 그리스도의 교회 그룹

을 등록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서류는 5월 14일(금) 경기도를 거쳐 6월 16일(수)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 교육과에 접수되었다. 그리고 8월 25일(수)에 관보게재가 결정되었으며, 8월 30일(월)에 『조선총독부 관보』 제3188호에 게재되었다. 당시 관보에 基督の教會(기독교의 교회)로 게재된 그리스도의 교회 그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조선총독부 관보, 基督の教會 포교관리자 설치계

1. 布教管理者(포교관리자) 設置届(설치계) 등록

(1) 그룹과 대표자 안내

① 教宗派名稱[교종파 명칭, 그룹 명칭]: 基督教(기독교)

교) 基督の教會(기독교회)

② 布教管理者[포교관리자, 그룹 대표]: 董錫琪(동석기) 선교사

③ 布教管理事務所[포교관리사무소, 그룹 사무실] 및
포교관리자 주소: 京畿道(경기도) 京城府(경성부)
茶屋町(다옥정) 四十八(48번지)[현 서울 중구 다동
(을지로1길)]

위 포교관리자 설치계를 살펴보면, 동석기 선교사는 조선총독부에 基督敎會(기독교회)가 아닌 基督の教會(기독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였을까? 먼저는 그리스도인교회(Christian Church)에서 먼저 등록한 그룹 명칭과 철저히 구분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Christian Church는 최초 선교사이며 포교관리자인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y) 목사가 1935년 4월 25일(목) 동석기보다 2년 정도 먼저 基督敎會로 등록한 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엡 1:22; 엡 5:23).’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서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基督敎會’라는 칭호는 한글로 ‘그리스도교회’이지만 ‘基督の教會’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이다(롬 16:16).



基督の教會 포교 방법 및 포교관리자 권한

(2) 그룹과 대표자

① 宗教(종교)와 그 教派(교파) 名稱(명칭): 基督教

基督の教會

② 教規(교규):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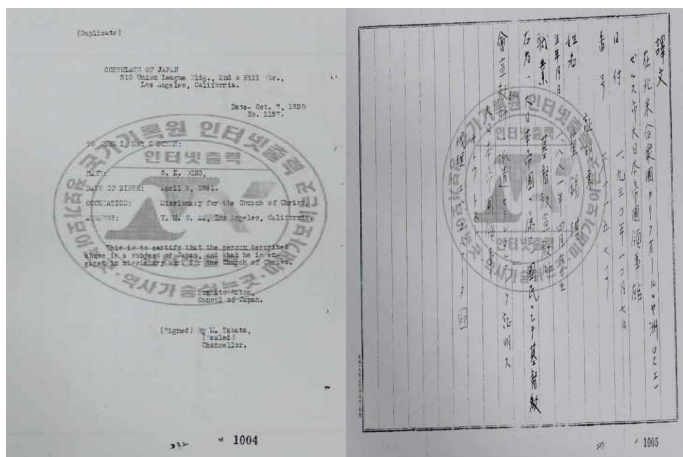
③ 布教方法(포교방법)

- 布教所(포교소)에서 布教(포교)
- 巡廻布教(순회포교)
- 通信布教(통신포교)
- 家庭傳導(가정 전도)
- 路傍傳導(노방 전도)

- ④ 布敎管理者(포교관리자) 권한(權限)
- 본(本) 敎會(교회)를 代表(대표) 한다.
 - 布敎事務(포교사무)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 敎會職員(교회직원)들의 任免(임면)과 賞罰(상벌) 등에 관한 모든 일을 결정하여 조처하며, 관리하고 감독한다.
- ⑤ 布敎者(포교자, 목사, 전도사) 감독방법(監督方法)
- 布敎管理者(포교관리자)가 자유스럽게 각 敎會를 巡廻(순회) 하거나 報告(보고)를 받는다.
 - 布敎者(포교자)가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살피며 단속하지만, 잘못이 발견되면 懲戒(징계)하며, 감독한다.
- ⑥ 布敎管理事務所(포교관리사무소) 位置(위치)
- 京城府(경성부) 茶屋町(다옥정) 四十八番地
- ⑦ 布敎管理者(포교관리자): 董錫琪(동석기)

동석기 선교사는 ‘포교관리자 설치계’에서 자신을 基督の敎會 그룹 대표인 포교관리자로 등록하면서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파송 받은 선교사 신분’으로 등록하였다. 그래서 동석기는 두 곳에서 증명서를 발부받아 제출하였다. 먼저는 일본영사관에서 기독교 선교사, 다음은 미국 웨이버리-벨몬트교회의 장로회로부터 ‘조선인 선교사’로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유는 조선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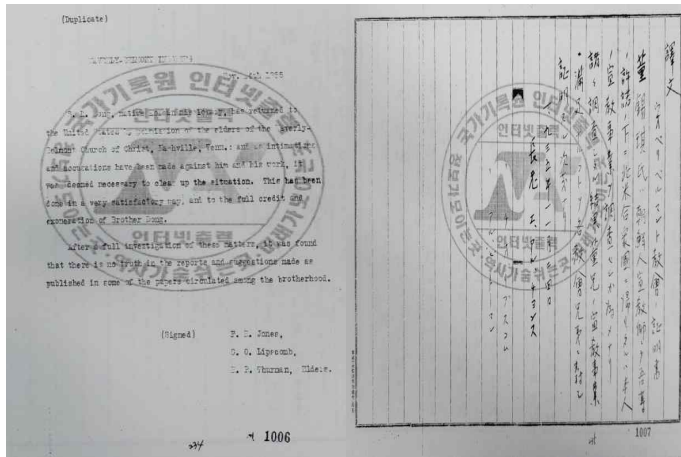
독부에서 모든 종파를 등록하라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 등록서류에 첨부할 필수적인 서류가 그룹 대표의 신분증명서였기 때문이다.



선교사 증명서, 일본영사관(1930.10.7.)

이러한 이유로 동석기 선교사의 ‘선교사 증명서’ 발급 요청을 받은 웨이버리 벨몬트교회의 장로회는 1935년 11월 24일(주일) 자로 발급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증명서에는 ‘존스(F. E. Jones), 립스콤(C. O. Lipscomb), 그리고 서먼(E. F. Thurman)’ 장로 등이 서명하였다. 동석기 선교사는 ‘포교관리자 설치계’에서 基督の教會 포교관리자 즉 그룹 대표인 자신의 권한(權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具體的)으로 세밀하게 밝히고 있다. “그룹을 대표하는 자로서 포교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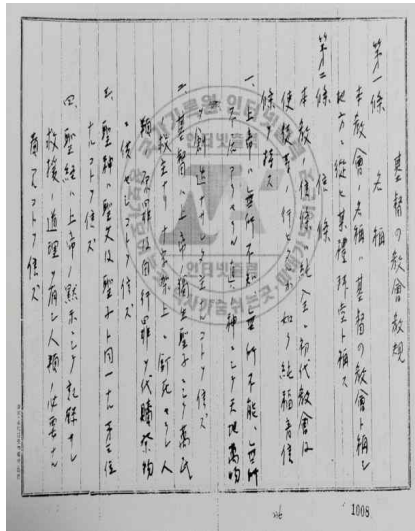
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의 임명과 상벌 등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목회자들의 활동을 살피며 단속하는 감독이다.”



조선인 선교사증명서, 웨이버리-벨몬트교회(1935.11.24)

여기서 동석기는 환원 후 미국을 떠나올 때 보도된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귀국하여 조선에서 자유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정리한 포교관리자의 권한을 보면 ‘감독교회’ 즉 ‘감리교회’ 감독의 권한을 그대로 옮겨놓았다는 생각이 든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먼저, 감리교회를 떠나 그리스도의 교회로 옮긴 지 7년 정도 된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보편적인 특징 10가지만 가지고 귀국한 후 구체적인 정리와 실질적인 적용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으로
는 감리교회 출신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젖어있던
감리교회의 감독제도를 자연스럽게 일정 부분 받아들
여 자신의 역할을 소개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基督教の教會(기독교의 교회) 教規(敎規)- 1

3. 基督教の教會(기독교의 교회) 教規(敎規)

第一條(제1조) 名稱(명칭)

본 교회의 명칭은 基督教の教會라 칭한다. 각 地方(지
방)에 있는 교회는 基督教の教會 ** 禮拜堂(예배당)이라
칭한다.

第二條(제2조) 信條(신조)

본 교회 신조는 순수하고 완전한 初代教會(초대교

회)와 使徒(사도)들이 지켜온 것과 같은 純福音(순복음)을 믿는다.

(1) 하나님은 ‘무소부지(無所不知,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무소불능(無所不能, 못 하는 것이 없으시고), 무소불거(無所不居, 어느 곳이나 계신)’ 하신 眞(진)실 하신 神(신)이시며, 天地萬物(천지만물)을 創造(창조)하신 主(주)님 이심을 믿는다.

(2)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獨生聖子(독생성자)이시며 영원한 救主(구주)로서 十字家(십자가)에 못 박히시므로 人類(인류)의 原罪(원죄)와 자행죄(自行罪, 자범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代贖祭物)로 돌아가셨음을 믿는다.

(3) 성령은 聖父(성부)와 聖者(성자)와 同一(동일)하신 三位(삼위)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4. 聖經(성경)은 하나님의 默示(묵시, 계시)로 구원(救援)의 道理(도리)가 기록된 말씀이기에 人類(인류)를 위해 必要(필요)한 말씀이라고 믿는다.

基督の教會 교규 제2조 제2항에 보면 “그리스도는 인간의 원죄(原罪)와 자행죄(自行罪)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원죄의 교리’가 基督の教會 신조로 채택되어 있다. 교회사적으로 ‘원죄의 교리’를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견해를 ‘펠라기우스주

의(Pelagianism)’라고 한다. 그리고 펠라기우스주의 견해에 대하여 교파형 교회들은 지금도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원죄와 자 범죄에 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알렉산더 캠벨의 견해를 빌리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다.



알렉산더 캠벨(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원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 도말하셨기에 유아세례는 불필요하며, 침례를 통해 얻게 되는 죄 사함의 죄는 자 범죄인데 미래의 자 범죄가 아닌 침례 받기 전까지의 자 범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은 ‘원죄의 교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을까?’ 또한 펠

라기우스주의자가 해석하는 원죄의 교리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이 해석하는 원죄의 교리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원죄의 교리에 관한 어떠한 해석이 불일치의 원인이 되고 있을까?